

고 불 문

시방삼세에 항상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오늘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한 전국의 사부대중은
화합의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공존과 상생을 실천하고자
상월선원의 청명한 기운을 맞이하며 거룩하신 부처님께 일심으로 고하옵니다.

혹독한 계절이지만 상월선원의 정진은 더욱 뜨겁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도 절실합니다.
저희들은 상월선원 결제대중의 본보기를 예경하고,
오늘의 공덕을 우리 사회에 널리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저희들의 원력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화합과 배려가 절실하고
공존과 상생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임을 알면서도
미혹한 마음에 부질없는 행동만 반복하고 있는 듯합니다.

모든 생명을 따뜻하게 품어주신 부처님,
오늘 사부대중의 마음은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땅이 얼어붙고 차가운 바람이 몰아쳐도
신심과 원력이 가득한 불제자들은
함께 걷는 행복과 평화의 길에서 물러남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여 화합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여 이웃과 함께 화목하며,
한국 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지혜와 자비 앞에서 마음을 열고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스스로 알아가며
화합과 상생을 함께 실천하는

자랑스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상월선원 결제대중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고,
사회와 국민의 큰 버팀목이 되어나가도록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 지켜가겠나이다.

당신이 걸으신 길을 따르겠다는 저희들의 서원을
너그럽게 접수하시어 널리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불기2563년 12월 14일

화합과 공존, 상생 세상을 위한
사부대중 철야정진법회 동참대중 일동